

2012년 하반기 일본경제전망

- 2012년 상반기 일본경제는 2011년 3차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본격적인 집행에 따른 공공투자 증가와 에코카(친환경차)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의한 소비증가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
- 금년 하반기에는 정책효과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수출의 회복세가 경제성장을 떠받쳐줄 것으로 전망. 다만, 세계경제상황이 불투명한 만큼 이 영향으로 경제가 감속될 가능성도 있음
- 실질 경제성장율은 2012년도 2.2%, 2013년도 1.5%로 전망

- 일본의 은행, 민간연구소 등 22개 민간조사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2012년 일본경제전망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

□ 감속 리스크는 있으나 수출회복에 의한 경기회복 지속

- 2012년도 상반기에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, 공공투자의 내수자극 효과의 정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상반되고 있음
 -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12년 7~9월 기간부터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하여, 후지종합연구소는 7~9월 기간을 확대국면으로 보고 있음
- 2012년도 하반기에는 7~9월기에 에코카에 대한 보조금이 끊길 것으로 예상되어, 10~12월기에는 자동차 판매대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

- 내수는 둔화되나,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회복세에 힘 입어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수출 회복세가 내수 확대책 효과의 소멸 분을 보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10~12월기에는 마이너스성장으로 빠질 것으로 보는 기관도 있음
- 모든 기관이 경기하강 리스크로서 유럽재정위기를 들고 있음

<일본 정부, 민간조사기관의 2012, 2013년도 경제전망>

(단위: %)

구분	정부경제전망(2012.1.24)		22개 민간조사기관 평균	
	2012	2013	2012	2013
실질소비지출	2.2	-	2.2	1.5
민간소비지출	1.1	-	1.6	0.9
민간주택투자	6.3	-	3.4	4.3
민간설비투자	5.1	-	2.2	3.3
공적자본형성	-1.0	-	8.2	-4.3
수 출	6.5	-	4.9	5.3
수 입	3.3	-	5.0	3.4
내수기여도	1.8	-	2.2	1.1
외수기여도	0.4	-	0.0	0.3
광공업생산지수	6.1	-	4.0	3.8
소비자물가지수	0.1	-	0.1	0.2
경상수지(조엔)	12.2	-	8.4	11.1
엔화환율(엔/달러)	77.5	-	81.3	83.8
원유가격(달러/배럴, WTI)	-	-	98.5	99.0

□ 부흥관련 투자는 지속

- 2012년도 민간설비투자는 부흥관련 투자가 기대되는 외에 기업수익의 개선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□ 수출환경 개선으로 수출 회복

- 유럽재정위기를 배경으로 대유럽수출뿐만 아니라 대유럽수출비중이 높은 중국에 대한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, 다수의 조사기관들이 2012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엔고로 인하여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

□ 엔고 압력 완화로 달러당 80엔대 유지

- 2012년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정 하에 점차 엔고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, 엔화 환율이 달러당 80엔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음
- 다만 유럽경제의 향방 여하에 따라서는 엔화 매입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으나,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일본은행의 경계감도 강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엔고진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□ 유가는 하향 조정될 것이나, 급등 가능성도 배제 못해

- 조사기관의 원유가격 평균치는 WTI로 배럴당 98.5달러, 통관 CIF 가격으로 112.3달러이나, 각 기관들이 전망치를 공표한 후 원유가격은 한 때 배럴당 80달러 이하까지 하락
- 미국 및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원유수요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임
- 다수의 조사기관들은 그리스의 유로권 이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점을 들어, 향후 유가에 대해 하향조정
- 그러나 미쓰비시동경UFJ은행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

경우, 원유공급에 대한 우려가 재발되면 원유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147달러를 갱신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

□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에 그칠 듯

- 소득 부진으로 저가격 지향의 소비자 심리에 큰 변화가 없는 한, 기업은 코스트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

<참고자료>

추고쿠전력(주)에너지종합연구소, 『주요민간조사기관의 2012년도 경제전망』 (2012.8.2)